

# 日本 석유업계의 경영실적

버블의 붕괴로 기업수익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日本 석유 업계가 오랜만에 양호한 업적을 기록했다. 걸프 위기에 의한 원유 비용 상승분의 가격전가가 원활히 진전되었기 때문에 3월기 결산 석유업계 8사의 경상이익 합계는 전기의 약 2.5배인 1,468억円이 되어 '80년도의 1,612억円에 이은 사상 2번째의 고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8사 합계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1.50%로 '89년 3월기의 1.67%를 하회했고 '89년도의 제조업 평균인 5.88%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석유업계가 이라크 쇼크에 편승해 지나치게 돈을 벌었다는 비판은 적당하지 않다. 대형설비투자를 자력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이익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日本 석유업계가 양호한 실적을 올린 첫째 이유는 국내경기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가솔린, 경유 등 연료유를 중심으로 석유제품의 수요가 전기대비 4.2% 증가로 높은 신장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작년 8월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업계 수위의 日本石油, 2위의 出光興産이 5년만에 매출액 2조엔대를 넘는 등 8사 모두 매출액이 2자리수 증가가 되었다. 그런데 通産省이 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방지막으로 작년 9월부터 도입된 도매가격의 월별결정방식이 말단소매 단계까지 침투해 오랜기간 업계의 저수익체질의 원흉이었던 사후조정(말단소매 단계에서 亂賣合戰의 결과 가격이 붕괴된 경우 석유업계가 특약점등으로 자금보충하는 시스템)이 거의 근절되어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었다.

전기에는 원유비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의 가격전가가 잘되지 않아 대폭감익이 되었다.

한편 두번째 이유로는 도매가격의 월별결정방식

이 소비자측의 지지를 받아서 비용전가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나아가 엔고기조의 정착으로 환차익이 발생한 것도 업적호전의 세번째 이유가 되고 있다. 日本石油의 경우 전기에 41억엔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으나 이번결산기에 104억엔의 환차익이 발생해 145억엔의 수지개선요인이 되었다. 8사 합계 환차익은 258억엔에 달해 차손이 209억엔 발생한 전기에 비해 467억엔의 호전이 되어 금리의 상승등에 의한 경상수지의 악화요인을 부정했다.

석유 각사는 업계의 업적 향상을 초래한 도매가격의 월별결정방식을 금년도에도 자주적으로 계속할 방침이고, '92년 3월기 결산시의 경상이익도 거의 보합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개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배 이상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三菱石油 사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업계의 의식변혁도 진전되고 있다. ♠

〈신한종합연구소, 日本경제동향〉

